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
		배포일자	2023년 1월 24일(화) 총 4매	
담당 부서	도시디자인단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공건축팀장 박재점 ☎ 440-4331• 담당자 박지훈 ☎ 440-4334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 공공건축가, 월미도 등 원도심 환경개선 아이디어 제안
 - 19일 총괄건축가 주재, ‘함께 만드는 도시공간 간담회’ 개최 -
 - 월미도, 화수부두, 내항 1·8부두, 개항장 거리 등 디자인 개선 아이디어 제안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19일 공공건축가들과 ‘함께 만드는 도시공간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‘함께 만드는 도시공간’은 공공건축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공간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으로, 이윤정(현일 건축 사사무소 대표) 등 9명의 공공건축가가 참여했다.

주요 대상지는 인천시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복합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월미도, 화수부두, 내항 1·8부두 주변, 개항장 거리와 경인아라뱃길 등 중·동구 중심의 원도심으로 선정했다.

▲월미도 주변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으나, 코로나 영향과 구도

심의 노후화로 인해 월미도의 재생이 필요한 상황이다. 이 지역을 문화적 공간으로 계획하고,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디자인 방안을 제안한다.

▲화수부두 주변은 항만과 공업기능이 주를 이루던 옛 도시의 모습을 탈바꿈시키고, 생활SOC를 조성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및 앵커시설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.

▲내항 1·8부두 주변은 수변공간을 활용해 외부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을 제안할 예정이며, ▲개항장 거리는 개항장 내 가로변 정비를 통한 도시재생 및 생활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.

마지막으로 ▲경인아라뱃길, 커넬웨이, 송도위터프론트 호수공원, 굴포천수변공원 등 수변공간에는 사람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친수공간 아이디어를 제안할 계획이다.

공공건축가들이 제안한 ‘함께 만드는 도시공간’은 오는 2월까지 제안을 마무리하고, 3월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이날 간담회에서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단장은 “앞으로도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원도심의 도시공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, 군·구에 사업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현재 한종을 총괄건축가를 포함해 총 58명의 공공건축가들이 위촉돼 있다.

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·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, 각종 현안 사업들을 기획부터 총괄·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<관련사진> 간담회 사진

참고 사진자료

